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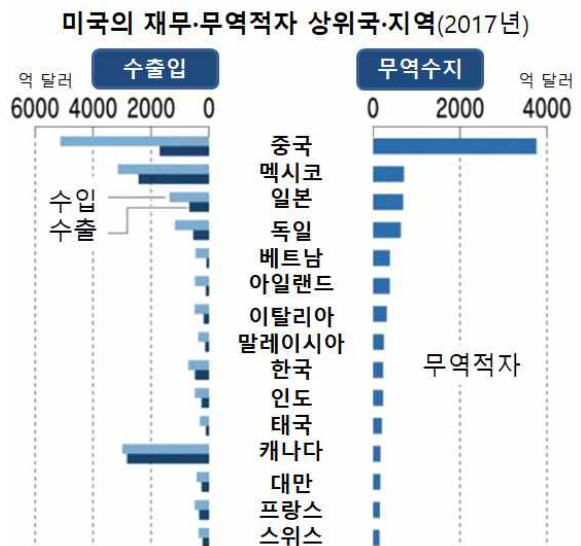
미일 통상교섭 개시: 일본 자동차와 환율 분야에서 어려운 입장에* - 미중 협의 여하에 따라 압력 증가도 -

* 이 자료는 이시카와 조타(石川 城太) 히토츠바시대학 교수가 일본경제신문 “미일 통상교섭 개시(上)” (2019.1.14.)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2국간 통상교섭에 중심축 이동하는 트럼프 정권
- 미국은 일본과의 교섭을 통상적인 FTA로 인식
- 자동차의 대미수출규제라면 일본 자동차업체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도

□ 트럼프 정부, 2국간 통상교섭에 중점

-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9월 26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물품무역협정 (TAG: Trade Agreement on Goods)의 체결을 위한 교섭개시에 합의,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임
- 6월에 오사카시에서 개최되는 20개국·지역(G20)정상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되고 있어, 그때까지 실무교섭의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의 근본에는 「무역흑자는 선, 적자는 악, 다자간 협상 보다는 양자간 협상이 유리한 거래로 가져갈 수 있다」고 하는 생각임
- 그리고 무역액이 크고 다액의 무역적자를 계상하고 있는 국가들과 양자간 협상을 전개하고 있음
-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약 700억 달러의 대일무역적자가 불공정무역관행에 기인하여 미국의 부와 고용을 약탈한다고 생각함. 또한 대통령이 되어 바로 TPP에서 이탈
-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을 없앨 목적에 더하여 통상교섭을 다자간에서 양자간 중심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있음



주: 미국이 2017년에 재무·무역적자를 상위 15개국·지역을 나열했음.

중국에 홍콩 포함.

자료: 닛케이신문(2019.1.14)

-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, 무역상대국·지역에 대한 제재를 인정하는 통상확대법 232조에 기초하여, 2018년 3월 23일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·지역을 대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각각 25% 및 10%의 추가관세를 부과했음
- 그 배경에는 중국의 국영기업이나 불투명한 거액의 보조금에 의해 발생한 철강 및 알루미늄의 과잉공급에 대한 대처, 러스트벨트(Rust Belt: 미국 북부의 사양화된 공업 지대)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 확대, 그리고 무역적자국과의 양자간 통상교섭의 기반 구축과 같은 의도가 깔려있음
- 협상의 기반 구축에서는 일본과는 2018년 4월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무역협약(FFR: Free Fair Reciprocal)을 설치하기로 합의함
- 그러나 한국과 브라질을 제외하면 양자간 협상은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3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232조에 기초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상무부에 지시, 최대 25%의 추가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음
- 만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추가관세를 미국이 부과하면, 일본에 대한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클 것임
- 2017년의 통계에 의하면 일본으로부터는 174만대(4조 4,000억엔)의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고 있음. 또 일본계 기업들은 캐나다에서 77만대, 멕시코에서 69만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
- 자동차부품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9,400억엔이 수출되고 있음.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서 약 500억 달러, 일본의 대미 수출액 중 약 40%에 이르고 있음

□ 미일 간 실질적인 FTA로 TAG 협상 개시

- 2018년 8월 9~10일에 제1회 FFR이 개최되었으나, TPP 복귀를 요구하는 일본에 대하여 미국은 양자간 FTA를 고수하는 자세를 보였음
- 결국, 일본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관세 인상을 우려하여 TAG의 협상 개시에 합의, 추가 관세는 일시 유보되었음
- 또 공동성명에는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과거 일본의 경제연계협정(EPA) 수준을 상회하지 않는 점, 자동차의 시장접근성에서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것이 명기되었음
- 미국 통상대표부(USTR)는 지난 12월 21일, 일본과의 통상교섭을 위해 22개 항목의 교섭목적을 발표함

- USTR은 이번 협정을 단순히 「United States - Japan Trade Agreement(USJTA)」라고 부르고 있어, 일본정부가 강조하는 「물품」이라는 문언이 들어가지 않았음
- 그리고 요구 22개 항목은 TPP의 21개 협상 분야의 거의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음. 즉 트럼프 정권은 일본과의 통상교섭을 일반적인 FTA 협상으로 간주하여, TPP에서의 합의보다 더욱 유리한 거래를 의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
- 요구항목에 환율이 들어가 있는 점에도 주의가 필요함.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통화약세로 유도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음
- 미국·멕시코·캐나다 협정(USMCA)를 염두에 두고 통화 약세 유도를 봉쇄하는 환율조항을 일본에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. 상품의 무역에 관한 협상에 이어 다른 분야의 협상에도 착수할 것임

□ 자동차 분야에서도 일본을 어려운 입장으로 몰아

- 자동차분야의 교섭에 관해서는 타국과의 FTA 재협상이 참고가 될 것임
- 한미 FTA 재협상에서는 (1)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% 관세철폐시기를 20년 연장하여 2041년 1월 1일로 함
- (2)한국은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을 각 업체에서 연간 50,000대(재협상 전에는 25,000대)까지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
- (3)자동차부품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
- (4)자동차환경기준을 한국이 설정할 시에는 미국의 기준도 고려함 등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었음
- USMCA에서는 232조에 기초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발동된 경우, 멕시코와 캐나다는 경트럭 및 연간 260만대까지의 승용차에 관세부과는 대상 외로 하고, 자동차부품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연간 1,080억 달러까지, 캐나다는 324억 달러까지를 대상 외로 했음
- 현시점에서는 양국의 대미 수출량은 제로관세한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 이 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
□ 일본에 추가적인 수입증가 조치나 대미 직접투자 증대도 요구할 가능성

- 이러한 사례에서 미일 협상에서도 일본의 안전기준이나 환경기준이 실질적으로 꺾질만 남게 될 가능성 및 실질적인 수량규제를 당할 가능성을 제외할 수 없음

- 수량규제가 도입되면 메이커에의 수출할당 문제도 발생함
- 그러나 수량규제가 일본 측의 수출규제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 일본의 자동차업체들도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
- 그 이익은 일본차의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가격에 상승압력이 걸리는 점, 수출차종을 이익 폭이 큰 승용차로 이동시키는 데서 발생함
- 또 미국의 안전기준 등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미국차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움. 추가적인 수입증가 조치 및 대미 직접투자 증대를 요구해올지도 모름

□ 미중, 일·EU 통상교섭도 미일교섭에 영향 미쳐

- 동시병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른 통상교섭도 미일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임
 - 2018년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EU 윤켈 유럽위원장이 무역협정교섭을 시작한 데 합의, 앞으로 본격적으로 교섭이 시작됨. 미일 협상의 행방은 일·EU 협상에 의해서도 좌우될 것임
 - 또 일·EU EPA가 2019년 2월 1일 발효됨. WTO 규범에서 벗어난 터무니없는 요구에는 일본은 EU와 제휴하면서 대항해야함
- 나아가 트럼프 정권은 중국정부와, 2,000억 달러분의 중국제품에 대한 제재관세 인상 유예와 교환으로 중국에 의한 강제적인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 무역과 구조개혁에 관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
 - 기한은 2019년 3월 1일로 이 협상도 미일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임
- 미중 협상이 난항을 하게 되면, 미일 협상은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, 역으로 신속하게 매듭지면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음
- 트럼프 대통령의 2국간 교섭에서 상투적인 수단은 보호주의적 정책 실시 및 그 위협에 의해 교섭을 유리하게 추진, 상대방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것임
 -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대통령의 생각대로 기능되고 있음. 미국이 압도적인 정치·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은 양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버리는 것임
- 의연히 대항하고 있던 중국에서 조차 일부 양보하기 시작함. 일본의 교섭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나 WTO규범과 정합적인 합의를 보기를 기대함. 